

울촌화학, OPP필름 가격 인상한다!

신한증권, 수익성 부진 타개위해 ... 코스트 부담도 줄어 영업이익 증가

굿모닝신한증권은 8월29일 울촌화학이 배당이익과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경기방어주라고 제시했다.

임지수 애널리스트는 “농심계열의 필름·포장재 전문 생산기업인 울촌화학은 2008년 2/4분기 수익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, 원료가격 부담 완화, 소재 등에서의 신사업 감가상각비 감소,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또 “2008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보다 60% 이상 증가할 것이며 순현금이 351억원으로 우량한 재무구조도 보유하고 있다”며 “높은 배당정책으로 2008년 배당이익도 주당 400-500원으로 매력적인 수준으로 예상된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8/29>